

## V. 鬱陵島の鳥類相

慶熙大 文理大 元 炳 旣 · 尹 茂 夫

울릉도의 조류에 관해서는 黒田長禮 및 森爲三, 元洪九, 小林時弘, 元炳旣 및 禹漢貞 등 제씨의 단편적인 보고가 있으나 4계절에 걸친 조류상을 밝히기에는 아직도 조사를 요한다. 전기의 조사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내역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Kuroda, Nagamichi 및 Mori, Tamezo (1920)는 울도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leucotos takahashii*, 울도박새 *Parus major dageletensis*, 울도곤출박이 *Parus varius utsurioensis*, 울도방울새 *Carduelis sinica clarki* 등 4 신아종을 기재하였다.

元洪九 (1932)의 「나의 蒐集한 朝鮮鳥類採集目錄」에는 울릉도에서 채집된 표본이 포함되어 있다.

小林時弘 (1938)의 울릉도 조류목록에는 12목 21과 30속 34종 및 아종에 대한 일반적인 서식상황을 종별로 기록하였다.

원병오 및 우한정 (1958)은 흑비둘기의 센사스 및 채집한 5개체에 대한 식성(위내용물) 조사와 아울러 흑비둘기 및 습새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를 강조하였다.

우한정 및 원병오 (1961)는 울릉도에서 조사 채집한 29종에 대한 내역을 수록하였다.

원병오 (1969, 1970)는 울릉도에서 자신이 채집한 표본을 포함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기록을 수록하였다.

### 조사일정

이런 조사는 1971년 8월 9일~12일 (11일은 우천으로 조사를 못함)까지 도내를 답사한 바 경로는 그림 1에 표시하였으며 조사지역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도동—성인봉 거리 약 5km 1971년 8월 9일 09:00—12:00
- 2) 성인봉—나리동 거리 3km 1971년 8월 9일 12:15—14:50
- 3) 나리동—추산(발전소) 거리 3km 1971년 8월 10일 10:45—12:15

- 4) 태하—남양 거리 8km 1971년 8월 10일 13:40—16:30
- 5) 도동—사동 거리 3km 1971년 8월 12일 11:15—14:23
- 6) 도동—천부 해상거리 14km 1971년 8월 12일 15:15—16:20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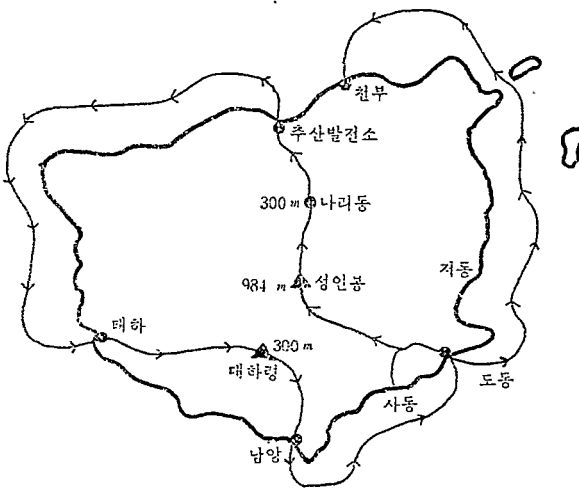
등산로를 따라 線센사스에 의거 저자 2인이 같이 행동하여 볼 수 있는 거리내의 종류수, 개체수를 집계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관찰한 기록개체수에 의한 종합적개체수밀도이며 번식 밀도는 아니다. 밀도는 1km, 1시간(h)당 개체수로 비교하였다. 거리와 시간 단위의 두가지 방법이 모두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비교밀도(Relative density)를 산출해 보았다.

### 조사결과

이번 조사는 8월 중순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조류는 이미 번식을 마치고 산령에로의 이행기에 접어들어 번식밀도는 추정할 수 없었고 큰유리새, 호랑지빠귀 등은 離巢후 아직 포육중인것도 있으나 울도곤줄박이, 울도박새 등은 亞成鳥가 많았다. 따라서 본 보고는 번식후 한 시기의 종류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계절에 따른 추수적인 변화는 있을 것이다.

지역별 조류의 분포와 밀도는 다음과 같다.

### 지역별 조류의 분포와 밀도



(그림 1. 답사경로)

#### 1) 도동—성인봉

이 지역은 평지에서 해발 984m까지의 지역이며 센사스 路程은 약 5km이다.

관찰된 조류는 13종 63개체이며 그 의 내역은 표 1과 같다.

우점도는 방울새 44.44%가 최우점종이고 다음으로 섬개개비 15.87%, 섬참새 14.28%의 순으로 이 3종이 이 지역의 기록총개체수의 74.59%를 차

저하고 있다.

거리당 밀도는 방울새 5.20개체가 최우점종이며 다음으로 섬개개비 2.00개체, 섬참새 1.80개체이고 나머지는 1개체 이하이다. 시간당 밀도는 방울새 9.67개체, 섬개개비 3.33개체, 섬참새 3.00개체의 순이다, 이외에 1개체이상은 큰유리새 1.00개체 뿐이다.

그러나 방울새와 섬참새는 번식후 이미 무리를 짓기 시작하여 작은 무리나 무리행동을 하고 있어 눈에 잘 띄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분산되어 있는 섬개개비는 비교적 높은 밀도에 예상케하였다.

13중 63개체에 대한 1km 당 밀도는 12.60개체, 시간당 밀도는 21.00개체이다.

## 2) 성인봉—나리동

이 지역의 로정은 약 3km, 해발 984m—250m 사이이다. 관찰내역은 표 1과 같다.

관찰된 12중 57개체 가운데 우점도는 흑비둘기 18.86%, 울도곤출박이 18.86%, 진박새 13.20%, 방울새 11.32%, 큰유리새 9.41%, 섬참새 9.41%의 순이다. 거리당(시간당) 개체 수 밀도는 흑비둘기 및 울도곤출박이가 각기 3.33(4.17)개체, 진박새 2.33(2.91)개체, 방울

표 1. 울릉도의 조류센서스

조 사 지 역 계 발	도 등 — 성 인 봉 0m — 984m					성 인 봉 — 나 리 동 984 — 250m				
	1km	1h	상대밀도 %	우점도 %	개체수	1km	1h	상대밀도 %	우점도 %	개체수
흑 비 둘 기	0.40	0.66	6.89	3.17	2	3.33	4.17	100	18.86	10
멧 비 둘 기	—	—	—	—	—	1.33	1.67	40	7.54	4
벌 어 리 때 꾸 이	—	—	—	—	—	0.66	0.83	20	3.78	2
칼	0.20	0.33	3.44	1.58	1	—	—	—	—	—
울도큰오색딱다구리	—	—	—	—	—	0.66	0.83	20	3.78	2
울도박새	0.20	0.33	3.44	1.58	1	—	—	—	—	—
진박새	—	—	—	—	—	2.99	3.74	90	16.98	9
울도곤출박이	0.20	0.33	3.44	1.58	1	3.33	4.17	100	18.86	10
섬적박구리	0.20	0.33	3.44	1.58	1	—	—	—	—	—
호랑지뚝귀	—	—	—	—	—	1.00	1.25	30	5.66	3
바다적박구리	0.40	0.66	6.89	3.17	2	—	—	—	—	—
섬개개비	2.00	3.33	34.48	15.87	10	—	—	—	—	—
큰유리새	0.60	1.00	10.34	4.76	3	1.66	2.81	50	9.41	5
알락할미새	—	—	—	—	—	0.33	0.42	10	1.88	1
동박새	0.40	0.66	6.89	3.17	2	—	—	—	—	—
섬참새	1.80	3.00	31.03	14.28	9	1.66	2.81	50	9.41	5
방울새	5.20	9.67	100	44.44	29	2.00	2.50	60	11.32	6
섬멧새	0.40	0.66	6.89	3.17	2	—	—	—	—	—
붉은뺨멧새	0.20	0.33	3.44	1.58	1	—	—	—	—	—
중 합 밀 도(개체수)	1km	12.60				19				
	1h	21				23.70				
	총개체수	63				57				

새 2.00(2.50)개체, 큰유리새 및 섬참새가 각각 1.66(2.81)개체이다.

혹비둘기는 행동권이 넓으므로 선 센사스에서 면적을 고려해야만 실수에 가까울 것이며 울도곤줄박이, 진박새는 이미 낮은 표고로 내려와 번식후의 혼성군을 이루고 있었다. 섬참새와 방울새는 나리동 분지의 경작지에서 무리생활을 하고 있어 눈에 잘 띄었다.

12종 57개체에 대한 1km 당 밀도는 19개체, 시간당 밀도는 23.7개체가 된다.

### 3) 나리동—추산(雉山)발전소

해발 250—0m 지역이며 센사스한 8종 42개체에 대한 내역은 표 2와 같다.

우점도는 섬참새 38.09%, 바다적박구리 14.29%, 멧비둘기 14.29%, 알락할미새 9.52%의 순이다.

거리(시간)당 밀도는 섬참새 5.33(12.31)개체, 바다적박구리 3.33(7.70)개체, 멧비둘기 2.00(4.61)개체, 알락할미새 1.33(3.08)개체이다.

8종 42개체의 1km 당 밀도는 14.00개체, 시간당 밀도는 32.30개체이다.

### 4) 태하—남양

태하는 울릉도에서 나리분지 다음가는 평지이며 대체로 순탄한 코스였고, 태하령(해발 300

표 2. 울릉도의 조류센사스

조 사 지 역	나 리 동 — 추산발전소					태 하 — 남 양				
	250 — 0m					0m—300m—0m				
해 발										
조 류 밀 도	1km	1h	상대밀도 %	우점도 %	개체수	1km	1h	상대밀도 %	우점도 %	개체수
말 품 가 리	0.33	0.75	6.25	2.38	1	—	—	—	—	—
혹 비 들 기	0.66	1.54	12.50	4.76	2	0.62	2.00	27.78	5.62	5
멧 비 들 기	2.00	4.61	37.10	14.29	6	0.25	0.80	11.11	2.25	2
빙 어 리 뱀 구 기	0.66	1.54	12.50	4.76	2	—	—	—	—	—
칼	—	—	—	—	—	1.37	4.40	61.11	12.38	11
울도큰오색딱다구리	—	—	—	—	—	0.12	0.40	5.56	1.12	1
귀 계 비	—	—	—	—	—	0.25	0.80	11.11	2.25	2
계 비	—	—	—	—	—	0.62	2.00	27.78	5.62	5
피 꼬 리	—	—	—	—	—	0.25	0.80	11.11	2.25	2
울 도 박 새	—	—	—	—	—	0.37	1.08	17.22	3.37	3
진 박 새	—	—	—	—	—	0.25	0.80	11.11	2.25	2
울도곤줄박이	—	—	—	—	—	0.86	2.64	38.89	7.86	7
바다적박구리	3.33	7.70	62.51	23.81	10	2.25	7.20	100	20.22	18
큰 유 리 새	—	—	—	—	—	0.50	1.60	22.22	4.49	4
알 락 할 미 새	1.33	3.08	25.00	9.52	4	—	—	—	—	—
노 랑 할 미 새	—	—	—	—	—	0.12	0.40	5.56	1.12	1
섬 참 새	5.33	12.31	100	38.09	16	2.25	7.20	100	20.22	18
방 울 새	0.33	0.75	6.25	2.38	1	1.12	3.06	50	10.11	9
중 합 밀 도(개체수)	1km	14				11.12				
	1h	32.30				35.60				
	총개체수	42				89				

m)에서 남양간은 경사가 심한 짧은 도로였다. 거리는 약 8km, 관찰된 조류는 15종 89개체이며 그의 내역은 표 2와 같다.

우점도는 섬참새와 바다직박구리가 각기 20.22%의 최우점종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칼새 12.38%, 방울새 10.11%, 산림조류인 울도곤줄박이 7.86%의 우점 순위이다. 거리당 밀도는 섬참새와 바다직박구리가 각기 2.25개체의 우점종이며 다음으로 칼새 1.37개체, 방울새 1.12개체, 나머지는 1개체 이하이다.

시간당 밀도는 섬참새, 바다직박구리가 각기 7.20개체로 우점종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칼새 4.40, 방울새 3.60개체 등의 순위였다. 본 지역의 우점종인 섬참새는 무리를 짓고 있으며, 섬참새는 태하령의 설잣나무에서, 바다직박구리는 남양의 경작지 개울에서 다수 목견되었다.

15종 89개체에 대한 1km 당 밀도는 11.12개체이며, 시간당 밀도는 35.60개체였다.

### 5) 도동—사동

이 지역은 대체로 사람의 왕래가 많고 경작지가 많은 코스였다. 센사스 로정(路程)은 약 3km 이다(표 3 참조).

우점도는 흑비둘기가 22.92%로 최우점종이며 이어서 방울새 16.22%개체, 바다직박구리 13.51%, 섬참새 12.16%, 섬개개비 9.45%, 알락할미새 8.61%의 순위이다. 이상의 6종이 전체의 82.92개체수를 차지하며 거리당 밀도는 흑비둘기 5.66개체, 다음으로 방울새 4.00개체, 바다직박구리 3.33개체, 섬참새 3.00, 섬개개비 2.33, 알락할미새 2.00개체의 순위로 나타나며 기타는 1개체 이하이다. 시간당

밀도는 흑비둘기 10개체가 최우점종이며, 방울새 7.06, 바다직박구리 5.71, 섬참새 5.29, 섬개개비 4.12, 알락할미새 3.53개체의 순위이다.

흑비둘기는 울릉도내에서도 사동에 서 제일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7~8월에는 사동 사당(三靈社)의 후박나무 열매의 결실과 더불어 採食하기 위해 해마다 집결하고 있다.

13종 63개체에 대한 1km 당 밀도는 24.66개체, 시간당 밀도는 43.53개체이다.

표 3. 울릉도의 조류센사스

조 사 지 역 해 발	도 동 — 사 동				
	0 — 200m				
조 류 밀 도	1km	1h	상대밀도 %	우점도 %	개체수
말 동 가 리	0.66	1.18	11.14	2.70	2
흑 비 들 기	5.66	10.00	100	22.97	17
멧 비 들 기	0.66	1.18	11.14	2.70	2
칼 새	0.33	0.59	5.89	1.35	1
울 도 박 새	0.66	1.18	11.14	2.70	2
울도곤줄박이	0.66	1.18	11.14	2.70	2
바다직박구리	3.33	5.71	58.82	13.51	10
섬 (울도) 개개비	2.33	4.12	37.64	9.45	7
알락할미새	2.00	3.53	35.29	8.61	6
노랑할미새	0.66	1.18	11.14	2.70	2
섬 직 박 구 리	0.66	1.18	11.14	2.70	2
섬 참 새	3.00	5.29	52.94	12.16	9
방 울 새	4.00	7.06	70.58	16.22	12
총 합 밀 도(개체수)	1km	24.66			
	1h	43.53			
	총개체수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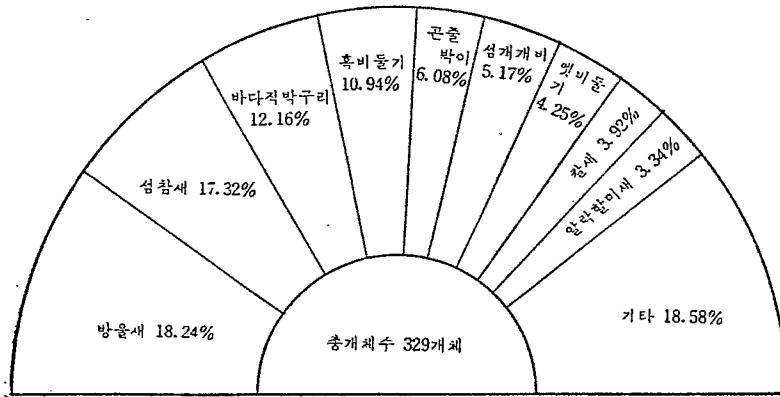
## 환경구분과 조류상

환경별로 구분하여 관찰된 조류를 종별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육조류(陸鳥類)

농경지와 低山地는 섬참새, 방울새, 섬개개비, 흑비둘기, 멧비둘기, 알락할미새 등을 대표종으로 들 수 있다.

총 24종 329개체를 관찰한 육조류의 우점도는 그림 2와 같다. 섬참새 17.32%, 방울새 18.24%, 바다적박구리 12.16%, 흑비둘기 10.94% 칼새 3.92%, 알락할미새 3.34%,의 순으로 총 81.42%를 차지하며 기타 조류는 18.58%에 불과하다.



〈그림 2. 우점조류(육상조류)〉

활엽 및 혼효림지는 큰유리새, 울도곤줄박이, 울도큰오색딱다구리, 울도박새, 진박새 등이 대표종이다.

### 海岸帶

관찰된 해조류(海鳥類)는 4종 뿐이며

지느러미발요도 518 개체와 평이갈매기 285개체가 최우점종이며 이외에 가마우지 2개체와 바다적박구리 1개체가 있다. 관찰내역은 표 4와 같고, 장소는 그림 3과 같다.

해안부근의 평지 제곡에서는 흔히 바다적박구리, 바위 절벽 상공에는 적은 수의 말뚝가리

표 4. 도동-천부간 해안조류의 센사스

(선열이용 14km)

시 간	지 역	종			
		지느러미발요도	평이갈매기	바다적박구리	가 마 우 지
발 15:15	저 동	490	13		
34	남면발전소		11		
42	칭 도		86	1	
53	와 달 리		108		
16:00	관 음 도		51		2
13	삼 선 도	28	11		
략 20	천 부 황		5		
소요시간 1시간 5분	총 계 706	518	285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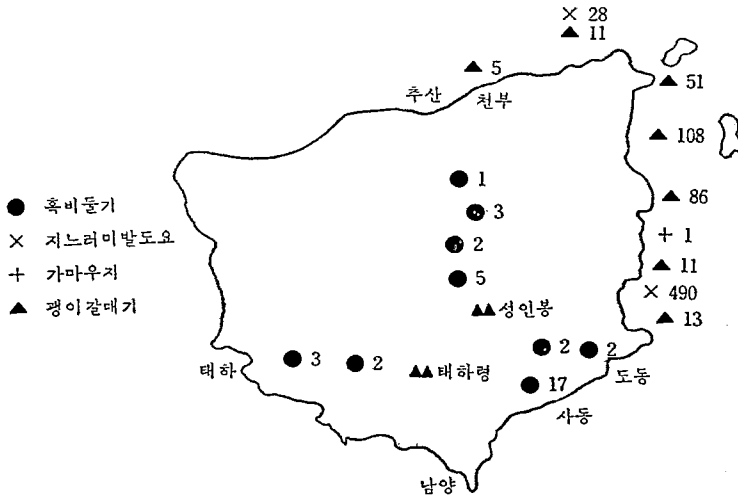


그림 3. 관찰조류

가 관찰되었고. 평이갈매기는 섬주위의 서쪽 보다는 동쪽의 청도(靑島)와 섬목사이의 해안 암상에서 큰 집단이 휴식중이었다. 저동 앞바다 해상에서는 남하 도중의 지느러미발도요의 대집단을 관찰하였다.

## 종별 관찰 기록

### 1) 습새 *Procellaria leucomelas*

울릉도에서 포항쪽으로 약 2km 떨어진 심해의 해상에서 1~2개체씩 수면을 비상중인 많은 무리를 관찰하였다.

### 2) 가마우지 *Phalacrocorax capillatus*

중저동의 북저바위에서 휴식중인 2개체를 목격하였다.

### 3) 말뚝가리 *Buteo buteo*

추산발전소근처의 바위절벽 상공에서 1개체와 사동근처의 망향봉 절벽에서 1개체를 각기 관찰하였다.

### 4) 지느러미발도요 *Phalaropus lobatus*

저동 앞바다 해상에서 약 390개체의 휴식중인 큰무리와 삼선암 부근에서 비상중인 8~10개

체의 무리를 관찰하였고, 저동 앞바다에서 3개체 (2송송, 1우)를 채집하였다.

5) 팽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추산발전소 근처의 암상에서 휴식중인 100여개체, 용굴근처의 암상에서 79개체, 섬목려안 암상에서 48개체가 각기 휴식중이었고, 해상에 비상중인 것은 대부분이 유조이며 멸치를 채식하고 있었다.

6) 흑비둘기 *Columba janthina*

후박나무의 열매가 있는곳은 도처에서 관찰되었으며 특히 사동 제당 三靈社에 있는 후박나무 5주에는 열매를 채식하기 위해 약 한 시간 동안에 17개체나 모여들고 있었다. 해발 700m의 성인봉등산로의 활엽수림에서도 적은 수나마 눈에 띄었고, 나리동과 남양에서도 목견되어 총36개체가 관찰되었다. 관찰된 장소는 그림 3과 같다.

7)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나리동 농경지에서 6개체, 사동의 이일선씨 별장 부근에서 2개체를 목견하였다.

8) 범어리뺨꾸기 *Cuculus saturatus*

나리동 화산분지 알봉근처의 활엽수림에서 2개체와 추산으로 가는 등산로에서 2개체를 각기 목견하였다.

9) 칼새 *Apus pacificus*

태하 마을 상공에서 선회하는 11개체를 목견하였다.

10) 울도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leucotos takahashii*

태하령의 섬갓나무 고목에서 채식중인 암컷 1개체와 나리동 알봉근처의 활엽수림에서 한 쌍을 목격하여 암컷 1개체를 채집하였다.

11) 제비 *Hirundo rustica*

태하의 경작지 상공에서 2개체의 성조와 3개체의 유조를 목견하였다.

12) 귀제비 *Hirundo daurica*

태하의 국민학교 근처의 농경지 상공에서 비상중인 2개체를 목견하였다.

13) 꼬꼬리 *Oriolus chinensis*

남양의 마을뒤 활엽수림에서 2개체를 목견하였다.



14) 울도박새 *Parus major dageletensis*, 울도곤졸박이 *P. varius utsurioensis*

해발 약 800m의 성인봉 등산로 주변의 활엽수림과 태하령 로변에서도 관찰되었다.

15) 진박새 *Parus ater*

성인봉 근처의 활엽수림, 태하령 나리동분지와 침엽수림 등지에서 관찰되었다.

16) 섬(제주)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amaurotis*

매우 적은 수가 간혹 분산적으로 눈에 띈다. 도동 뒷산 능경지 포푸라나무에서 1개체와, 사동의 이일선씨 별장 근처에서 2개체를 목견하였다.

17) 호랑지빠귀 *Zoothera dauma*

나리동 마을 아동이 사육중인 부화후 약 15일경의 새끼 3개체를 보고 사진촬영하였다.

18) 바다직박구리 *Monticola solitaria*

해변가 보다 마을 근처의 계곡 및 평지의 도처에서 관찰되었고, 특히 남양계곡에서 흔히 목견되었다.

19) 큰유리새 *Siphia cyanomelana*

성인봉 북사면 활엽수림에서 이소한지 얼마않된 3개체를 관찰하였으며, 나리동 분지에서도 역시 이소 직후의 5개체를 관찰하여 그중 암컷 1개체를 채집하였고, 태하에서도 4개체를 목견하였다.

20) 섬(울도)개개비 *Locostella ochotensis pleskei*

사동 마을 인가부근 대나무 숲과 해발 700m의 성인봉 등산로 조릿대림에서 많은 수가 관찰되었다.

21)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및 노랑할미새 *M. cinerea*

알락할미새는 추산발전소의 저수탱크에서 금년에 이소한 4개체와, 나리동에서 1개체, 사동에서 6개체를 각기 목견하였고, 노랑할미새는 태하의 경작지 개울에서 1개체와 사동에서 2개체를 각기 목견하였다.

22) 등박새 *Zosterops japonica*

도동 마을 경작지 송진탑옆 동백나무에서 2개체를 관찰하였다.

23) 섬참새 *Passer rutilans*

나리동 화산분지의 관목림과 인가의 울타리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24) 방울새 *Carduelis sinica ussuriensis*

도동 농경지 부근 송림에서 다수 관찰되었고, 사동 이일선씨 별장 근처의 농경지, 성인봉 주변의 해발 900m 활엽수림의 고지대에서도 적은 개체수가 관찰되었다.

25) 섬(제주)멧새 *Emberiza cioides ciopsis*

도동의 경작지에서 관찰되었다.

26) 붉은뺨멧새 *Emberiza fucata*

성인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의 경작지에서 관찰되었다.

부기 : 바다비오리 *Mergus serrator*

필잡의 1인 낚은 1967년 2월 14일 울릉도를 답사하여 도동부두해상에서 암컷 1개체를 관찰하였다.

### 일반조류상의 작금(昨今)의 변천

울릉도 조류상은 작금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造船用 수목의 벌채와 더불어 동백나무도 거의 벌채하다시피 남벌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농경지도 산 증복에 이르기까지 확충되어 자연림이란 일부지역에 잔존하는 형편이다.

小林(1938)의 서식실태에서 밝힌 바와 같은 당시 혼했던 큰부리가마귀와 섬직박구리는 격감되어 전자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후자는 1956년과 1961년 조사에서 흔히 관찰되었으나(元 및 外, 1961), 이번 조사에서는 단 3개체가 관찰되었을 뿐이다. 동박새도 小林(1938)의 기록으로는 흔했으나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小林(1938)의 울도방울새는 보통 방울새 *Carduelis sinica ussuriensis*를 오인한 것이며 Koroda 및 Mori(1920)의 특산아종에 대한 기재도 재검을 요한다. 울도방울새는 원기재에서 밝혔듯이 북부(치시마)에서 번식하고 일본에서 흔히 월동하는 보편적인 겨울새인 방울새 *Carduelis sinica kawarahiba*의 크기이며 최근 거제도(元, 1969)와, 부산 다대포(1971년 1월 8일 3송송, 4우우 채집)에서도 다수 관찰되었으나 모두 월동중에 채집(11송송, 15우우)되었고 북부의 집단이 이동 남하한 아종임에는 틀림없다고 확신하나 아종의 동정에는 아직 시간을 요한다. 현재 울릉도에서 여름에 번식하는 방울새는 한국 본토에서 흔히 텃새로 번식하는 방울새 *Carduelis sinica ussuriensis*이며 원기재의 표본(1920년 4월 19—29일 도동 및 사동에서 채집된 표본 2송송, 1우)은 월동중이거나 월동 후 북상중에 채집되었을 것이다.

참새도 1956년(元 및 外, 1961) 조사에서는 도동과 사동 인가 주변에서 흔히 목견되었으며 섬참새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참새는 한 개체도 볼 수 없었던 반면 섬참새가 농경지나 잡목 관목림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흑비둘기는 공기총으로 남획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일정이 짧아 면적에 대한 밀도는 조사하여 산출못했지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같이 선 센사스에 의한 시간당, 거리당 밀도는 매우 높다. 이것은 번식장소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섬 일원의 경사지에 분산되어 있는데다 번식후 채식을 위해 일시(7~8월) 인가 부근 후박나무에 집결 채식시나 엄동의 강설후 산령이나 인가부근에 표행할 때에 한하여 공기총이나 기타방법으로 희생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집단의 밀도에는 큰 피해는 주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밀획마저도 금지되어야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슴새는 元 및 禹(1961)가 지적한바와같이 이미 울릉도의 번식지는 남획으로 자취를 감추어 가고, 1956년에 농경지에서 볼 수 있었던 출때까치, 노랑때까치, 큰소작새 등은 이번 조사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붉은발슴새와 황로(元, 1969) 등이 새로이 채집되어 이곳을 통과 함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지느러미발도요의 매집단이 울릉도 근해를 규칙적으로 통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결 론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알려진 조류는 46종이며 본 조사를 통하여 8종을 추가하여 54종이 된다. (별 목록 표 5 참조).

울릉도의 조류상은 서식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작금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서지방의 특징적 조류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섬참새, 바다적박구리, 흑비둘기, 섬(울도)개개비 등 전형적인 도서종이외에 방울새가 제 1위의 우점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참새는 섬참새로 대체되었고 동박새나 섬적박구리 등 도서종은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흑비둘기는 국내에서도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내고 있어 공기총을 사용하는 등 일시적인 밀렵행위를 제거 한다면 세계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큰 집단이 될 것이다.

표 5. 울릉도 조류목록

1971년 8월 9-12일

No.	종 명	Scientific Name	관찰	채집	보 고 자
1	슴 새	<i>Procellaria leucomelas</i>	9		元
2	붉은발슴새	<i>P. carneipes</i>			元
3	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pillatus</i>	2		
4	왜가리	<i>Ardea cinerea</i>			小 林
5	중대백로	<i>Egretta alba modesta</i>			小 林
6	해오라비	<i>Nycticorax nycticorax</i>			小 林
7	덤불해오라비	<i>Ixobrychus sinensis</i>			小 林

8	황		로	Bubulcus ibis			元	
9	고		니	Cygnus bewickii			小	林
10	청	둥	오	Anas platyrhynchos			小	林
11	바	다	비	Mergus serrator			小	茂
12	말	둥	가	Buteo buteo	3		元	夫
13	매	의	일	Accipiter sp.				
14	쇠	들	닭	Gallinula chloropus			小	林
15	꼬	마	물	Charadrius dubius			小	林
16	잠	작	도	Actitis hypoleucos			元	
17	청	도	요	Gallinago solitaria			小	林
18	지	느	터	Phalaropus lobatus	518	3	小	記
19	평	이	갈	Larus crassirostris	285			錄
20	재	갈	매	L. argentatus			小	林
21	바	다	쇠	Synthliboramphus antiquus			小	林
22	혹	비	들	Columba janthina	36			
23	멧	비	들	Streptopelia orientalis	14			
24	큰	숫	작	Otus bakkamoena				
25	빙	어	리	Cuculus saturatus	4		末	記
26	칼		새	Apus pacificus	13			錄
27	울	도	큰	Dendrocopos leucotos takahashii	2	1	黑	田, 小
28	계		비	Hirundo rustica	5			林
29	귀	계	비	Hirundo daurica	2		末	記
30	피	꼬	리	Oriolus chinensis	2		末	記
31	큰	부	리	Corvus macrorhynchos			小	錄
32	울	도	박	Parus major dageletensis				林
33	울	도	큰	P. varius utsuriensis			黑	田, 小
34	진	박	새	P. ater	11		末	記
35	섬	(제주)	적	Hypsipetes amaurotis	3			元
36	섬	(제주)	갈	Troglodytes troglodytes			小	林, 元
37	호	탕	저	Zoothera dauma	3		小	記
38	흰	백	지	Turdus pallidus			小	林
39	바	다	적	Monticola solitarius	40	3		
40	큰	유	리	Siphia cyanomelana	12	1		
41	섬	(울도)	개	Locostella ochotensis pleskei	17			
42	알	락	할	Motacilla alba leucopsis	11			
43	노	랑	할	M. cinerea caspica	3			
44	흙	배	까	Lanius tigrinus				元
45	노	랑	배	L. cristatus				元
46	동	박	새	Zosterops japonica	3			
47	섬	참	새	Passer rutilans	57	1		
48	참		새	P. montanus				元
49	방	울	새	Carduelis sinica ussuriensis	59			
50	방	울	새	C. sinica subsp.			黑	田, 小
51	되		새	Fringilla montifringilla			小	林
52	섬	멧	새	Emberiza cioides ijimae	1			
53	쭈		새	E. rustica			小	林
54	붉	은	멧	E. fucata	1		末	記

※ 본 조사기간에 확인된 종류는 「보고자」에서 제외함

인 용 문 헌

Kuroda, Nagamichi and Tamezo Mori

1920. Descriptions of six new forms of birds from Dagelet and Quelpart Island. 6 pp. Published by the authors.

1920. 鬱陵島産採集の主なる鳥類に就て(附鬱陵島産鳥類目錄). 「鳥」2(10) : 265—283, figs. 41—43.

元洪九

1932. 余の蒐集したる朝鮮産鳥類目錄. 水原高農25周年記念論文集. p. 27—48.

小林時弘

1938. 鬱陵島鳥類目錄. 朝博雜 (23) : 33—35.

元炳旣・禹漢貞

1958. 鬱陵島産 珍貴한 鳥類 2種의 保護에 대하여. 韓應動雜 1(1) : 103—106.

禹漢貞・金相旭・元炳旣

1961. 鬱陵島の 夏期の 鳥相・野生鳥獸實態調査. pp. 1~20. 農事院, 水原.

元炳旣

1969. 韓國鳥類分布目錄, 178 pp. 林業試驗場.

Won, Pyong-Oh and M. E. J. G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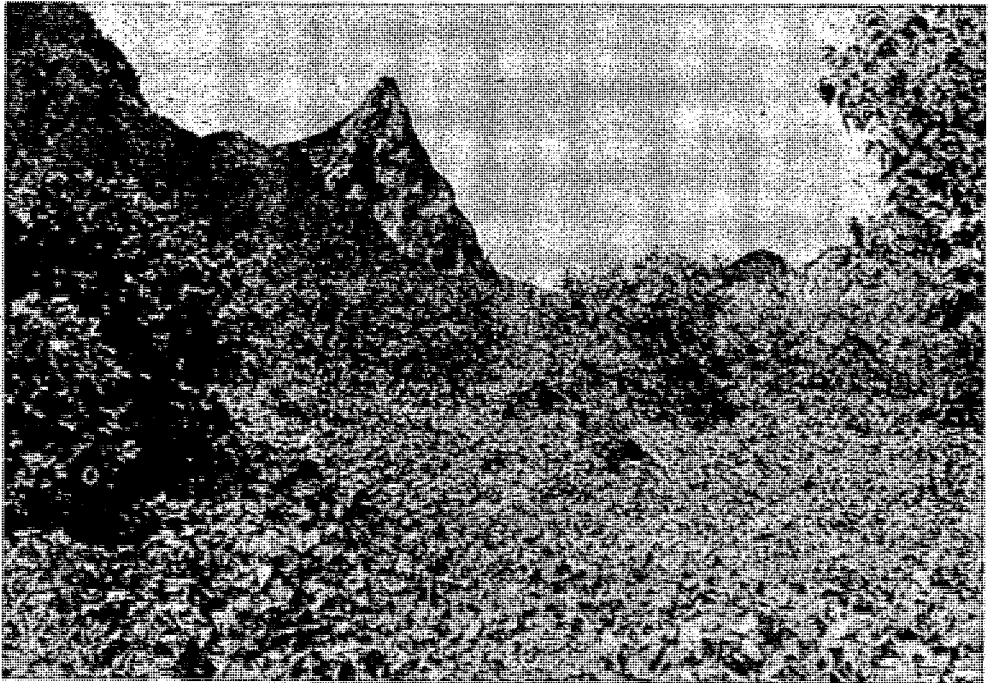
1970. The birds of Korea. 450 pp.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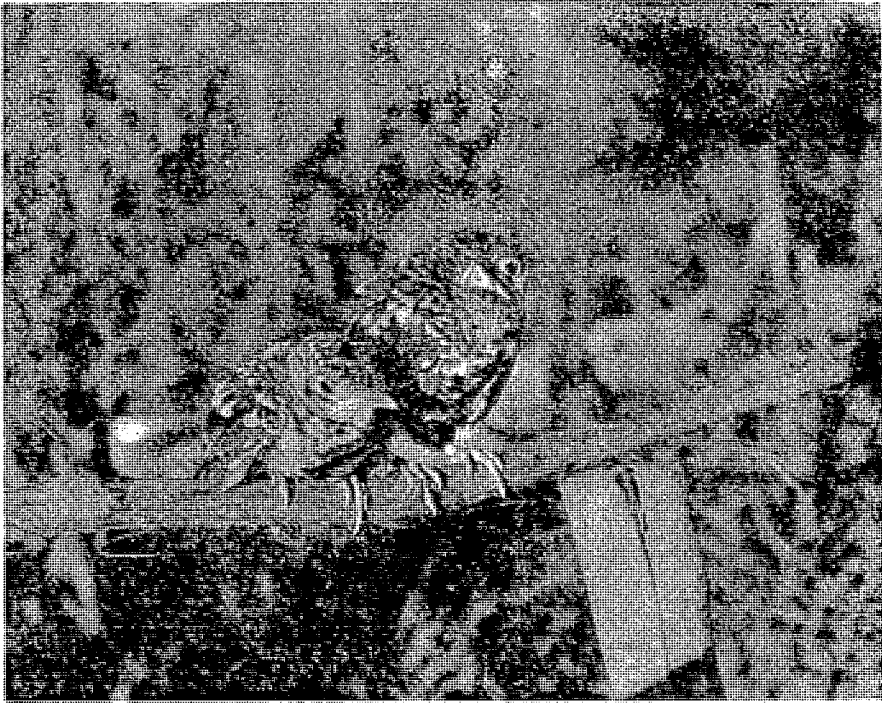
<사진 1. 울릉도 사동 제당<三靈社>의 흑비둘기의 채식지(후박나무). 1971년 8월 12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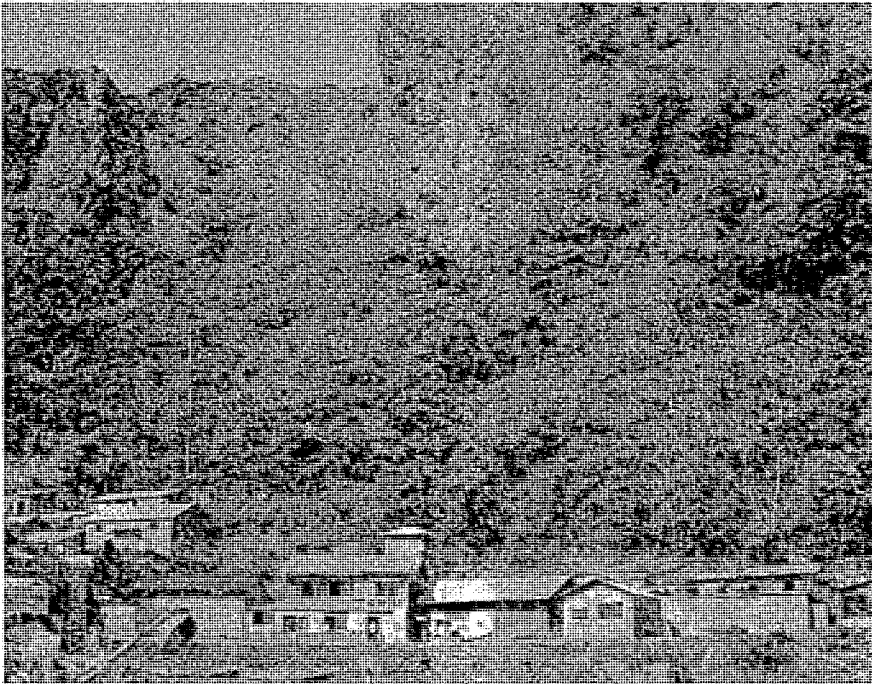
<사진 2. 울릉도 사동 계당(삼령사)의 후박나무에 채식을 위해 모여든 17개체의 흑비둘기. 1971년 8월 12일 촬영 (서울신문사 사진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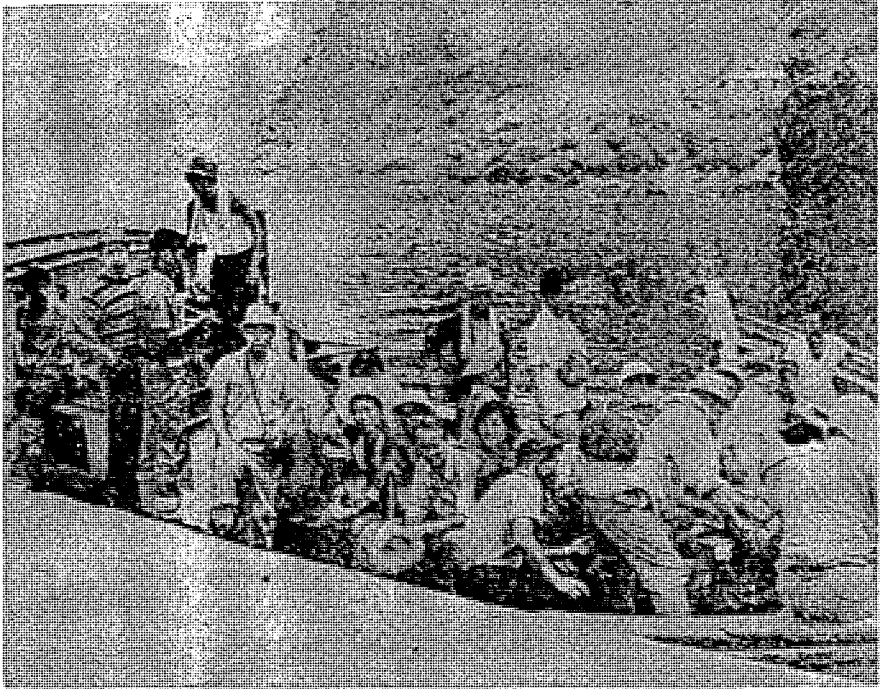
<사진 3. 나리동 분지 농경지의 섬참새집단의 서식지. 1971년 8월 9일 촬영>



<사진 4. 나리동 마을에서 아동들이 사육중인 호랑지빠귀 새끼 (2마리)(미기록종). 1971년 8월 9일 촬영>



<사진 5. 울릉도 도동 부두가의 흑비둘기의 서식지(후박나무). 1971년 8월 13일 촬영>



<사진 6. 울릉도 추산(송곳산)발전소 부두에서 승선중인 답사대원. 1971년 8월 10일 촬영>



## 要 約

1. 울릉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하는 孤島의 火山地形으로서 특유한 景觀을 갖추고 있다
2. 植生은 환경조건의 局部的인 차이에 對應하여 발달하고, 그 階層構造, 植生類型, 생태군, 주요 군락 등이 내륙지방과 다른 도서지방과도 판이하다.
3. 植物相은 한반도 分子와 일본분자 및 30여종의 고유 분자로 구성되었고, 특히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14종이 생육하는 특수한 식물구계를 이루고 있다.
4. 昆虫相은 과거 기록된 것이 62과 218종인데 금번 조사로 인하여 55과 126종을 同定하였으므로 그 총 수는 344종이 된다. 특히 제주왕나비가 이곳에서 채집된 것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다.
5.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쥐 제외), 담수 어류(은어 제외)가 분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종류가 매우 적은 점은 다른 도서지방과 대조적인 특유한 지역이다.
6. 鳥類는 이미 알려진 46종에 이번 조사에서 8종을 추가하여 54종이 된다. 도서지방의 특징적인 조류상을 이루고 있으나 방울새가 제 1위의 우점도를 나타내며, 동박새, 섬적박구리 등의 도서종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그 수가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흑비둘기는 국내의 서식지에서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느러미발도요를 비롯한 많은 도요새 집단이 섬주변을 통과하고 있어 각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 建議 사항

1. 도서의 화산지형, 식생, 식물상, 동물상이 반도부나 다른 도서지방과는 판이한 특수 景觀 지역이므로 학술상 가치가 있고, 관광 자원으로라도 확보되어야 하며, 인구가 적고, 대규모의 생산공장이 없어서 환경 汚染이 적은 지대이므로 자연환경의 표준지구로서 적합한 곳이다. 따라서 이 자연환경을 천연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여 영구 보존을 도모하고,
2. 천연기념물과 멸종의 위기에 놓인 동, 식물들을 보호하는데 도내의 각 행정기관의 보다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며, 더욱 관광객에 대한 자연 보존에 관한 계몽 사업의 전개가 시급히 요청된다.
3. 섬잣나무, 솔송나무와 같은 경계성이 있는 適地樹種을 조림수종으로 선정하여 조림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파괴된 자연식생을 복구시킬 수가 있으며,
4. 고추냉이의 국내 수요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충족시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재배를 적극적으로 당국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목이버섯의 인공재배를 기도하여 수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